

“령혼”의 무게는 얼마인가?

1987 년에 몸밖으로 나온 “령혼”을 찍은 사진은 과학계에서 한차례의 큰 소동과 열렬한 토론을 일으켰다. 이것은 멕시코의 한 심령학과학자 후리안·말사스가 발표한 한 환자의 사망전 일순간의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환자가 사망전 일순간에 한가닥의 흰색 물질이 몸에서 솟아올랐다. 말사스는 《이것은 인체를 주재하고 있던 “령혼소립자”가 죽은 사람의 육체에서 금방 떠나려는 것인데 일단 그를 잃어버리면 인체는 령혼이 없는 육체만 남게 된다.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오래가지 않아 썩게 된다.》라고 해석했다.

과연 “령혼”이 죽기전에 인체를 떠나는가? 이른바 “령혼소립자”는 물질인가? 어떻게 증실해야 하는가? “령혼”이 몸에서 나온 사진은 과학자들의 광범한 토론을 일으킨후 령혼학을 연구하는 의사, 심리학자, 과학자들로 구성된 7 인연구단체를 성립했다.

1996 년 가을, 이 령혼학권위들은 100 명의 죽은 사람의 체중변화를 측정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람이 사망할때 수분과 기체가 사람의 체내에서부터 방출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체중에서 감해낸후 인체가 사망전과 사망후의 중량을 다시 계산해보니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에 체중이 35g 이 감소되었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하여 령혼은 몸에 붙은 일종 물질이며 이 물질은 중량이 있다는 것을 실증했으며 령혼의 중량은 35g 이라고 인정했다. 과학자들은 진실보 해석했다. 인체를 떠난 “령혼소립자”는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떠돌면서 미립자상태로 나타나는데 어떤때는 이 미립자가 한데 엉키여 눈으로 볼수 있는 물체로 된다. 이것이 곧바로 인류가 볼수 있고 또한 사진중에 나타난 유령이다. 사람의 령혼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만약 사람생명의 진정한 령혼을 원한다면 물질향수와 도덕승화 이 량자중에서 어느것이 더욱 중요한가? 당연히 도덕승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도덕이 승화해야만이 사람은 생로병사와 룬회환생에서 해탈되어 반본귀진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또다시 연구를 시작한 빈사체험

잉글랜드텔레비존방송국(BBC)의 2008 년 9 월 18 일자 보도에 의하면 잉글랜드와 미국의 25 개 병원에서 온 의사들은 난안프던대학교의 협조로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춰섰다 살아난 1500 명 행운자의 빈사(濒死)체험에 대한 3 년간의 연구를 시작했다. 심장박동이 멈췄다 되 살아난 어떤 행운자는 빈사체험을 거친후에 갱도와 밝은 빛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어떤 환자들은 응급실의 천정에서 내려다보면 자기를 응급하는 의사와 호사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환자가 되살아난 곳에 특수하게 만든 틀을 놓았는데 틀위에 놓은 그림은 천정에서만 볼수 있게 했다. 이 연구를 책임진 파넬의사는 《대뇌활동이 멈춘후 여전히 의식이 있다면 이 의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实体)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장박동이 멈추고 폐, 대뇌활동이 멈춰야만 의학상에서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췄다”고 한다.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춘후 응급원들이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회복할수 있어야 되살아날

수 있다. 이 시간은 몇 초 혹은 몇시간 혹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다. 환자가 심장박동이 갑자기 멈췄을 때에 우리들은 빈사체험을 료해할수 있게 된다.



파넬의사는 2001 년초에 100 여명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실험설계는 이번과 류사했다. 그중 구원된 7 명 환자들이 깨어난후 자신의 “령혼”이 몸을 떠나서 본 정경들을 말했으며 특히 천정아래 널판위에 놓은 “작은 물체(어떤 물체인가를 파넬만 알고 있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맞추었다. 파넬의사의 이 실험은 령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했던 것이다. 이번 실험은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었고 실험인수는 10 배나 더 많았다.

사실 중국의 옛사람들은 줄곧 령혼이 존재한다는 것과 룬회환생, 선악보응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제 2 차 신운추석공연이 원만히 결속



지난 9 월 28 일 오후 토론토 바사트극장에서 제 2 차 신운예술 단추석공연은 5 일동안

4 차례 상연을 거쳐 원만히 막을 내렸다. “신운”은 완벽한 예술풍격으로 5 천년 중화의 박대정심한 신전문화를 세계무대에 펼쳐 수많은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세계의 웃음거리로 된 가짜 뉴스

중공의 대변인인 신화사의 신화망은 지난 9 월 25 일(“신주 7 호”를 발사하기 이틀전 임)에 이미 신주 7 호비행선이 지구를 30 바퀴돌았다고 거짓 보도를 내보내면서 지구를 돌 때의 정형을 이렇게 보도했다. 《한밤중, 업무지도원이 보고하는 견정한 목소리가 항천측량선의 적막을 깨뜨렸다》 《선실기압정상!》, 《선실 산소분기압 정상!》 비행선 내의 매폭의 그림과 매 줄의 수치가 전파에 따라 머나먼 조국으로 전하고 있다. 《복기압 스위치와 궤도실 복기압이 40 천 파스칼에 도달했음. 보고 끝》 우주비행원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듯 똑똑히 들려왔다. 《알았음》 만리 밖에서 울려오는 지휘원의 뚝뚝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지난 9 월 29 일에 신화망은 《편집의 조작 실수로 초고를 인터넷에 내어 미안하다.》는 사과편지를 발표했다. 이 어찌 단순한 편집의 조작 실수란 말인가? “신주 7 호”를 발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미리 가짜 뉴스를 써놓았는가? 중공의 “위대한 공적”을 선양하려다가 그만 세계의 웃음거리로 되고 말았다. 신화망은 중공의 대변인으로서 거짓 조작은 그의 타고난 생존방식이다.

날마다 늘어나는 파룬궁수련생들

인도 방 케롤지역의 파룬궁학원들이 날마다 늘어나 지금 교육계만 하더라도 80 여개 학교의



사생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위 사진은 단체련공하고 있는 죠디(JYOTHI)학교 학생들이다.

9 년동안 박해를 받다가 세상을 뜬 소박한 농민



산둥성 제성시상주진전랭대촌에서 살고 있는 한 소박한 농민인 리옥곤(李玉昆, 왼쪽 사진)은 파룬궁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9 년동안 모진 박해를 받았다. 1999 년 7 월 20 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얼마 안되어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불법으로 구류소에 갇혀 한시간 남짓하게 못매를 맞아 두눈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피가 흘러나왔다.

2000 년에 리옥곤은 북경에 상방갔다는 이유로 객가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악경 진결은 전기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전기충격하고 나서 땅바닥에 엎어놓고 가시돋힌 고무몽둥이로 머리, 잔등, 둔부, 다리를 마구 때린후 다시 그를 눕혀놓고 구두발로 머리, 얼굴, 가슴, 쇄골, 다리를 힘껏 찼다. 그의 온몸은 온통 피멍이 되고 나중엔 굶아터져 검게 되었다.

2001 년 봄, 리옥곤은 또 악경 진결에게 붙잡혀 앞이 두대가 발에 채워 부러졌고 내리치는 쪽걸상에 얻어맞아 머리가 터졌으며 얼굴은 구두발에 짓밟혀 정신을 잃었다.

금년 올림픽전 당지 파출소에서는 여러번 리옥곤집에 와서 협박하여 그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뜨락에서 사진을 찍었고 또한 그더러 외출말고 하루에 두번씩 파출소에 가서 등록하게 했다.

지난 8 월 3 일에 리옥곤은 병에 걸린 외삼촌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청도로 가다가 고밀기차역전에서 신분증검사를 당해 정공파출소로 압송되어 5 천원을 사취당했다……9 년동안 중공의 모진 박해와 시달림을 받아 온몸이 쇠약해진 리옥곤은 환갑잔치날 며칠 앞두고 금년 9 월 17 일에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무사통행

상인과 결탁한 탐관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어린이생명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네.

